

이강인 도움-최준 결승골-이광연 선방... 기적을 일구다

정정용 감독, 맞춤형 전술로 '황금세대' 이끌어

“이강인 등이 합류하면 8강·4강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4강 신화를 재현하는 것이 목표다”

정정용 감독이 지난 2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2019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미디어데이에서 U-20 월드컵 출전할 태극전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밝힌 각오다.

축구팬들은 '골짜기 세대'인 이번 대표팀이 우승후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가 포함된 죽음의 조에서 16강 아니 1승만 거둬도 다행이라고 했다. '골짜기 세대'라는 의미는 팀이 약체여서 기대치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사실 이번 대표팀은 이강인(발렌시아)과 정우영(바이에른 뮌헨)의 팀으로 불렸다. 소속 팀의 차출거부로 기대를 모았던 정우영은 소집되지 않았고 김정민(리퍼링),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세진(수

원), 조영욱(FC서울)을 제외하곤 스타급 선수도 없었다. 하지만 막상 패를 열어보니 이번 대표팀은 '골짜기 세대'가 아닌 '황금세대'였다.

첫 경기인 포르투갈 아쉽게 0-1 석패했다. 후반전에 희망을 봤던 정정용 감독은 팀을 추스렸고 정 감독을 중심으로 '원팀'을 이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일본, 세네갈, 에콰도르 등을 차례로 격파했다.

정정용 감독의 맞춤형 전술과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혼으로 한국은 사상 첫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 진출이라는 기적을 일궈냈다. 정정용 감독은 전반전과 후반전에서 각기 다른 포메이션과 다양한 선수를 기용하면서도 전반에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렸다. 후반에는 엄원상(광주FC)과 전세진 등을 투입하며 과감히 공격적으로 나섰다. '제갈용' 전술은 토너

먼트에서도 적중, 결국 결승까지 올랐다. 태극전사들은 보란 듯이 모두가 탈락을 예측한 죽음의 조에서 2승 1패로 조 2위로 통과했다.

결승을 진출하기까지는 골키퍼 이광연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광연은 U-20 월드컵 준결승까지 6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하며 한국의 골문을 굳게 지켰다.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하는 동안 2실점(3골)으로 막아내고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이광연(강원FC)의 수훈이었다.

이광연의 활약은 준결승전에서 더 돋보였다. 이광연의 활약이 가장 돋보인 장면은 후반 추가시간 4분에 나왔다.

에콰도르는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결정적 찬스를 잡았다. 레오나르도 캄파니의 헤더가 오른쪽 구석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광연이 동물적인 반사 신경으로 몸을 날려 골이나 다름없는 불을 견어냈다. 이광

연의 결정적인 선방 덕분에 대표 팀은 짜릿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크로스 달인 최준(연세대)도 준결승에서 '황금 오른발' 능력을 뽐냈다.

이번에는 크로스가 아닌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승부의 흐름을 가져오는 결승골을 책임진 것이다.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한 최준은 0-0으로 맞선 전반 39분 이강인(발렌시아)이 프리킥 기회에서 수비수 사이로 원발로 패스를 찰라주자 오른발 슈트로 반대편 골문을 깨물었다. 최준은 대표팀에서는 왼쪽 수비를 책임지지만 소속팀에서는 왼쪽 측면에서 접고 중앙으로 들어와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능력을 선보였다.

에이스 이강인도 대회 내내 상대선수를 당황하게 만드는 탈압박과 창조적인 패스를 중원에서 뿌리며 대표팀의 결승행에 일조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이광연 골키퍼가 12일 오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에서 결승진출을 확정된 뒤 김대환 골키퍼 코치의 등에 업혀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18세 골든볼 수상할까 1골4도움 기록



이강인이 12일 오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에서 슈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더루키’ 이강인이 마라도나, 메시, 아게로, 포그바의 길 걷을 수 있을까?

U-20 한국 대표팀이 사상 첫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강인(18·발렌시아)의 골든볼 수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FIFA 골든볼은 대회 기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무전 활약한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로 오세훈(아산)의 선제 헤더골을 도와 첫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는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12일 열린 에콰도르전 데드볼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노루패스로 최준의 결승골을 도왔다.

이강인의 이번 대회 공격포인트는 5개(1골 4도움)를 기록하고 있다.

오는 16일 새벽 1시 폴란드 우치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선전한다면 이강인의 골든볼 수상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골든볼 후보는 슈파세이브로 우크라이나를 결승까지 이끈 골키퍼 안드리 루닌(5경기 3실점), 4골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닐로 시란(우크라이나), 공격포인트 5개(3골, 2도움)를 기록한 세르히 볼레차(우크라이나)가 꼽힌다. 골든볼은 FIFA 기술위원회의 종합평가로 선정된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세계 축구계를 미래 축구스타들의 등용문이다. 1979년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 2001년 하비에르

사비올라(아르헨티나), 2005년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2007년 세르히오 아게로(아르헨티나), 2013년 폴 포그바(프랑스)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골든볼을 수상했다.

FIFA 주관 대회에서 남자 개인상을 받은 것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이끈 홍명보의 브론즈볼이 유일하다.

여자 연령별 대표팀은 지난 2010년 잇따라 수상했다. 여민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 U-17 여자월드컵에서 8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을 사상 첫 FIFA 주관 대회 우승을 이끌며 골든슈(득점왕)와 골든볼을 받았다. 앞서 '지메시' 지소연은 2010년 독일에서 열린 U-20 여자월드컵에서 8골을 넣으며 한국을 4위로 이끌며 실버볼과 함께 실버슈(득점 2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강인은 네덜란드 명문구단 아약스와 이적설이 흘러나왔다. 아약스 중원의 핵심 프랭키 데 융(23)이 8600만 유로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아약스는 데 융의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기 위해 노리고 있다. 프랭키 데 융은 2018-19 에레디비시 MVP로 선정되고, 아약스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네덜란드 대표팀 부동의 주전이다. 이강인은 프랭키 데 융은 물론 올 여름 이적이 유력한 하킴 지에흐(26·아약스)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임 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인접 땅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992㎡, 공유 지분 매매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H.010-6834-7400

임 야 매 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 인 직 거 래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완도군 완도를 망서리 도로접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식당 82㎡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면 1억5백
-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능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양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막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민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 물건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연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남평읍 드들강 오델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복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둘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강점(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